

인구 3300만 충칭에 ‘한류 콘텐츠상품몰’ 생긴다

〈중국 重慶〉

콘진원 30·충칭 70% 비용 부담

협력촉진센터 등 중국 진출 활로

국내 콘텐츠 개발 지원금 개선도

중국의 4대 직할시로, 세계에서 인구가 3300만명으로 가장 많은 도시 충칭에 거대 한류상품복합몰이 들어선다.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충칭 진출을 위한 한중문화산업협력촉진센터와 우리 콘텐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류상품 복합몰이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충칭시의 국유 문화기업을 총괄하는 충칭문화산업 투자그룹유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출 기반을 다졌다.

송성각 원장은 “충칭시가 한국 콘텐츠 기업을 위해 3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겠다고 했다”며 “한류 테마파크 설립을 기획해달라는 제안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충칭시에 들어설 예정인 한류상품복합몰, 비즈니스센터, 한류 테마파크 등의 건물을 세우는 데는 콘진원이 30%, 충칭시가 70%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또 콘진원은 오는 6월에 중국에서 베이징에 이어 두 번째로 충칭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월 중)에 신규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3월 중)와 브라질 상파울루(7월 중)의 한국문화원에 해외 마케팅을 파견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도쿄, 런던 등에 있는 해외사무소와 올해 신설되는 4곳을 포함한 8개 지역을 ‘문화산업 교류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무소와 문화원에는 상설 한류 콘텐츠전시관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올해 콘진원은 지난해보다 인력 20%, 예산 40%를 늘려 창조적 융복합콘텐츠 개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40% 증액되고, 인력이 20% 증원된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정부 들어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콘진원의 전체 정원은 기존 187명에서 227명으로 늘어났다.

송 원장은 “조직의 확장은 기회이자 위기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유사기능, 부서통합, 대담체 도입 등을 통한 내부 정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콘진원은 올해 총 29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여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맨 오른쪽)과 중국 충칭 문화산업투자그룹유한공사의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MOU 체결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융복합 콘텐츠의 발굴과 창업지원 예산(564억원)과 융복합 인력 양성 예산(264억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올해 콘진원의 5대 중점사업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융복합 콘텐츠 발굴 ▲창조경제 시대를 견인할 창의적 크리에이터 육성 ▲콘텐츠 + α, 수출전략 다각화로 한류 빅딜마켓 창출 ▲고품질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지역 및 전통 콘텐츠 가치의 재발견이 제시됐다.

또 콘진원은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등 4개 과제를 중

심으로 ‘지원금 차등지원제’를 시행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금 차등지원제란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점수가 일정 수준(80점) 이상이면 나머지 지원금(20%)을 주는 방식이다.

70~80점대는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며, 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으면 지원금 일부를 환수한다.

이인숙 융합전략기획본부장은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는 콘텐츠 기업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며 “창작산업의 생태계에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칙을 세워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예술위, 올 상반기 20명 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관 설립 이후 최대 채용 규모다. 정규직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으로 구분해 채용한다. 신입사원은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통해 인턴으로 선발하고서 3개월간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선발인원의 70%

를 정규직으로 최종 전환한다. 경력사원은 실무능력을 우선으로 평가하며 프레젠테이션-면접전형을 통해 채용 즉시 업무에 투입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는 정규직 선발이 끝나는 3월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추가로 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CA, 순천·여수 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이하 KCA)은 최근 노동조합과 함께 순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낙안효자실버빌’과 여수시 장애인생활시설 ‘더불어사는집’을 각각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KCA는 매년 지역의 독거노인 가구와 복지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명룡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전력 ‘송배전분야 우수시공 기업’ 23곳 선정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7일 대전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23개 송배전분야 시공품질 우수 회사에 품질인증서를 수여했다.

한전은 협력 회사의 시공품질을 향상과 자율적인 품질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공품질 우수 협력사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공품질 우수회사에 품질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기존의 시공품질 불량회사에 대한 패널리 적용 위주의 관리방에서 벗어나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진화된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이번 품질인증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의 송변전·배전분야 596개 협력회사의 공사현장 시공품질 및 기자재 취급관리 적정성, 품질경영 노력도 등 15개 항목을 평가해 32개 협력사를 1차 선발했다. 이 가운데 한전과 전기공사협회가 공동으로 최종 심사를 통해 송변전분야 9개, 배전분야 14개 등 총 23개의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우수 협력사 인증을 받은 회사는 향후 3년간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7일 대전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시공품질 우수 협력사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23개 송배전분야 회사에 품질인증서를 수여했다. <한전 제공>

공능력평가에서 신인도 부문에 2% 가점이 부여된다.

한전 박성철 기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한전의 경쟁

력”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전과 협력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전은 시공품질 우수 협력사

인증을 통해 현장중심의 자율적이고 선진화된 품질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빛 ‘값을 능력’에 따라 감면을 달라진다

50% 일률 적용→30~60%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지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지만 앞으로 신북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북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려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시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가량 검토되고 있다.

신용대출자 가운데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체 우려 고객이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을 연체 이전에 미리 돕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은행권이 마련할 공동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은행이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 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이 거론된다.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해 고객을 접촉해 상담을 거쳐 상환방식 변경,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연합뉴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